

한의학 및 한의학교육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인식 조사

주성준¹⁾ · 엄동명^{3),4)} · 송지청^{1),2)*}

¹⁾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²⁾ 제한동의학술원

³⁾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⁴⁾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A Research for Recognitions of Korean Medical Student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

Joo Sungjun¹⁾, Eom Dongmyung^{3),4)} & Song Jichung^{1),2)*}

¹⁾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²⁾ 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³⁾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⁴⁾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their occupation satisfaction. Therefore, Korean medical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toward their education is important for their medical abilit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KM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their perceptions of TKM level.

Methods :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is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students' satisfaction and their perception toward issues about TKM. 168 cases were collected, and I analyzed 164 cases.

Results : 43.9% of students think that the ratio of western medical courses to TKM courses in TKM school's curriculum is 'Proper'. 54.3% of students do not satisfy their curriculum. But, 51.2% of students would recommend high school students for entrance to TKM school. 77.9% of students think 'TKM doctor should use modern medical device'. 92.7% and 61.9% of students think 'Needed' toward 'Cooperation of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and 'Medical unification' each. There are correlations ; (1)'recognition toward ratio of curriculum', (2)'satisfaction of curriculum', (3)'degree of recommendation to enter the TKM School', (4)'relation between TKM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Conclusions : Student's satisfaction of education is not quite high than satisfaction of TKM study itself. Most of respondents agreed usage of medical devices. The more they thought that they had curriculum for western medicine, the lesser they thought that medical unification was ont neede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assess satisfactions of students for their education with more accuracy results.

Key words : recognition, satisfacti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education

• 접수 : 2016년 10월 19일 • 수정접수 : 2016년 11월 18일 • 채택 : 2016년 11월 29일

*교신저자 : Song Jichu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1 Haanydae Rd., Kyungsan City, Kyungbuk, ROK

전화 : +82-53-819-1826, 팩스 : +82-53-819-1850, 전자우편 : prunedias@gmail.com

I. 서론

한방의료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¹⁾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총계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연간 9.1%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맞춰 1980년대 초까지 5개에 불과하던 한의과대학은 2016년 현재 11개의 한의과대학과 1개의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 추후 한방医료를 제공할 한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는 한의과대학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그에 반해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2004년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되었으나, 2016년에 와서 평가원이 인증을 받아 한의학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최근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전한련)의 ‘교육환경개선 프로젝트 한의대 클래스 업’ 활동 등, 다방면에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육의 질 평가에 기초자료로 사용²⁾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교육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의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 공포되며 한의사제도도 법제화됨에 따라 의료제도가 한의학과 서양의학으로 이원화되었다.³⁾ 그 후 6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다양한 문제들로 한의계와 양의계는 협력보다 반목에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2009년 연구⁴⁾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양한방 협진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1.4%,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2%로 나타나는 등, 양한방협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90년 이후 의료체계 내에서 양한방 협진 제도를 도입⁵⁾하는 등의 논의와 제도 개선이 계속되고 있다. 2005년의 연구⁶⁾에 따르면 한의대생들 중, 55.1%가 협진의 필요성에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규제 기요틴’의 하

나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거론되었고, 그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다양한 연구들^{7),8)}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한방 협진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의료일원화 등에 대한 한의대생의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의 교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한의학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9),10)} Elsevier, Springer, Sage, Wiley등의 국제 출판사들도 다양한 전통의학 저널을 발행하고 있고, 그 중 ‘Alternative Medicine Review’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가 2012년 기준 4.9로 세계 보완대체 및 통합의학 분야 22개 SCI저널 중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전통의학분야의 세계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주로 한의학(Traditional Korean Medicine 또는 Korean Medicine, 이하 TKM)보다는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이하 TCM)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한의학은 국가 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침구요법, 기요법, 약초요법 등의 여러 가지 요법을 통틀어 말하는 ‘대체의학’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이하 CAM)과 한의학은 서로 유사한 부분도 많아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한 연구^{11),12)}도 다수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과 TCM 및 CAM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보고,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은 높았고,¹⁴⁾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또한 전공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¹⁵⁾ 그 뿐만 아니라, 전공학과 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도 또한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¹⁶⁾ 이와 같이 전공만족도는 학문적 성취도 및 추후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추후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한의사 양성에 있어서 전공 만족도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 따른 한의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본 연구에서는, 한의대생들의 커리큘럼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와 전반적인 한의과대학 만족도를 조사해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한방 협진, 의료일원화, 한의학의 세계화 및 한의학과 TCM, CAM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전공교육 인식에 따른 한의학 발전 방안의 의식 차이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한의대생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북 그룹 ‘나는 한의대생이다’*에 공지를 통하여 응답을 모집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유사한 주제의 선행연구들^{6),17),18)}의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성별과 나이, 학교 및 학년, 거주지역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한 다음, 교육과정의 인식과 만족도, 불만족 사유 및 한의과대학의 전반적인 만족도 4문항,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한방 협진, 의료일원화에 관한 3문항, 한의학과 TCM 및 CAM에 대한 인식,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 2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응답을 수집하였다. 교육과정의 만족도와, 한의과대학 진학을 추천할 지 여부에 대한 설문은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1에 가까울수록 불만족(비추천), 5에 가까울수록 만족(추천)을 의미한다. ‘생화학, 분자생물학, 양방생리학, 해부학 등의 과목은 기초과학과목에 속하나, 본 설문에서는 편이상 양방과목에 포함함’이라는 안내를 관련 문항에 추가하였다.

응답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0을 이용하였고, 배경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만족도 및 인식에 따른 의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행하였다. p -value가 .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III. 결 과

응답은 총 168건을 수집하였고, 그 중 중복응답과

응답 내용이 부실한 4건의 응답은 제외하고 164건의 응답에 대해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63.8%인 104명이 남성이었다고, 36.2%인 59명이 여성이었다. 응답 중 10.4% (17건)이 20세 이하였고, 74.4%(122건)이 20세 이상 25세 미만, 15.2%(25건)이 25세 이상이었다. 응답자의 학교는 D 대학교가 58.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K 대학교가 11.7%(19명), W 대학교가 8.0%(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학년은 예과 1, 2학년, 본과 1, 2, 4학년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본과 3학년은 5.6%(9명)으로 가장 적었다(Table 1).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Respondents

		응답자 수 (명)	비율 (%)
성별	남성	104	63.8
	여성	59	36.2
	합계	163	100.0
연령	20세 미만	17	10.4
	20세 이상 25세 미만	122	74.4
	25세 이상	25	15.2
	합계	164	100.0
재학 학교	D 대학교	95	58.3
	K 대학교	19	11.7
	W 대학교	13	8.0
	기타	36	22.0
	합계	163	100.0
학년	예과 1학년	33	20.5
	예과 2학년	34	21.1
	본과 1학년	41	25.5
	본과 2학년	21	13.0
	본과 3학년	9	5.6
	본과 4학년	23	14.3
	합계	161	100.0
거주지	서울	37	22.7
	경기도	21	12.9
	경상도	80	49.1
	전라도	12	7.4
	기타	13	7.9
	합계	163	100.0
응시 계열	자연계열	114	69.5
	인문계열	50	30.5
	합계	164	100.0

* Facebook에 개설된 한의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소통공간으로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groups/iamhani/>이다.

1. 한의대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에서 양방과목과 한방과목의 비율에 대한 응답은 ‘적당하다’는 응답이 43.9%(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과목이 약간 많고, 양방과목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20.1%(33건), ‘양방과목이 약간 많고, 한방과목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17.1%(28건)으로 뒤를 이었다(Table 2).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2.44로, 보통에

못 미쳤다. 반면, 지인에게 한의과대학 진학을 추천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평균 3.34로, 보통을 넘었다(Table 3).

2. 한의학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인식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은 ‘사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7.9%(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은 ‘협진 체계 구축은 반드시

Table 2. Recognition towards Education in Traditional Koran Medicine

		응답자 수 (명)	비율 (%)
교육과정에서, 양방과목과 한방과목의 비중에 대한 인식	양방과목이 매우 많음	7	4.3
	양방과목이 약간 많음	28	17.1
	적당함	72	43.9
	한방과목이 약간 많음	33	20.1
	한방과목이 매우 많음	6	3.7
	기타	18	10.9
	합계	164	100.0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29	17.7
	불만족	60	36.6
	보통	51	31.1
	만족	22	13.4
	매우 만족	2	1.2
	합계	164	100.0
교육과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불만족 사유 (복수응답)	교수법의 개선이 필요	112	30.8
	과한 유급제도	69	19.0
	실험 또는 실습의 부족	56	15.4
	선택과목 부족	55	15.2
	시설 및 환경의 개선 필요	55	15.2
	기타	16	4.4
	합계	363	100.0
한의과대학 진학 추천 여부	매우 비추천	12	7.3
	비추천	23	14.0
	보통	45	27.5
	추천	65	39.6
	매우 추천	19	11.6
	합계	164	100.0

Table 3. Comparing between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ducation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	2.44 (0.97)
한의과대학 진학 추천 여부	3.34 (1.09)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4.3%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진 체계 구축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38.4% (6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인식은 '의료일원화는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2.3%(6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교적 응답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한의학과 TCM 및 CAM에 대한 인식으로는, '한의학은 TCM 또는 보완대체의학과 다르므로, 잘못되었다.'라는 응답이 37.2%(6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한의학은 TCM의 일부이다'라는 응답과 '한의학은 CAM의 일부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24.4%(40건)과 22.0%(36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의학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65.6%(107건)의 응답자가 '노력에 따라 세계화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Table 4 참조).

3. 한의대생들의 전공교육 인식에 따른 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

교육과정의 교과과목 비중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의 만족도, 한의과대학 진학 추천 여부 3가지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인식, 한의학과 TCM 및 CAM에 대한 인식,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 3가지를 교차분석 한 결과, 9가지 결과 중 6가지의 결과에서 *p*-value가 .05 이하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교과과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양방과목이 많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의료일원화는 불필요하고,

Table 4. Recognitions for Usage of Medical Devices and Medical unification between Western and Traditional Medicine

		응답자 수 (명)	비율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사용해야 함	127	77.9
	사용할 필요 없음	7	4.3
	잘 모르겠음	20	12.3
	기타	9	5.5
	합계	163	100.0
양한방 협진	반드시 필요함	89	54.3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63	38.4
	불필요함	2	1.2
	잘 모르겠음	6	3.7
	기타	4	2.4
	합계	164	100.0
의료일원화	반드시 필요함	32	19.6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69	42.3
	불필요함	24	14.7
	잘 모르겠음	27	16.6
	기타	11	6.8
	합계	163	100.0
한의학과 TCM 및 CAM과의 관계	한의학은 TCM 또는 CAM과 별개임	61	37.2
	한의학은 TCM의 일부임	40	24.4
	한의학은 CAM의 일부임	36	22.0
	잘 모르겠음	16	9.8
	기타	11	6.6
	합계	164	100.0
한의학의 세계화 가능성	가능함	43	26.4
	노력에 따라 다름	107	65.6
	불가능함	10	6.1
	기타	3	1.9
	합계	163	100.0

한의학은 TCM 또는 CAM과 별개라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p < .01$)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과정의 만족도에 대해 교육과정에 만족하는 집단에서 한의학은 TCM 또는 CAM과 별개라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5$)하게 많았다.

한 의과대학 진학 추천 여부에 대해 진학을 추천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의료일원화는 불필요($p = .05$)하고, 한의학은 TCM 또는 CAM과 별개($p < .05$)이며, 한의학의 세계화는 가능하다($p < .01$)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Table 5).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과 한의과대학에 대한 만족도,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한의계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할 수 있었다.

1. 양방과목과 한방과목의 비중

교육과정 상의 양방과목과 한방과목 비중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양방과목 또는 한방과목이 많다는 의견이 각각 21.4%와 23.8%로 나타났다. 즉, 45.2%의 응답자가 교육과정 상 교과목의 비중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44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의학교육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만족도는 2.35에서 2.66의 범위 내에 있었고¹⁸⁾, 한의학교육에 대한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만족도는 2.69라는 2012년의 선행연구¹⁷⁾를 참고하면, 2016년 현재 한의과대학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2012년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만족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

Table 5. Recognition Spread of Traditional Medicine Development according to Education

		의료일원화 (N,%)		한의학과 TCM, CAM의 관계 (N, %)		한의학의 세계화 (N, %)		
		필요	불필요	별개임	일부임	가능	노력에 따라	불가능
교육과정 교과과목 비중에 대한 인식	양방과목이 많음	17 (37.0)	10 (83.3)	21 (70.0)	13 (35.1)	12 (60.0)	20 (40.8)	1 (33.3)
	한방과목이 많음	29 (63.0)	2 (16.7)	9 (30.0)	24 (64.9)	8 (40.0)	29 (59.2)	2 (66.7)
Chi-Square Test		$x^2 = 8.227, df = 1, p\text{-value} = .004^{**}$		$x^2 = 8.057, df = 1, p\text{-value} = .005^{**}$		$x^2 = 2.302, df = 2, p\text{-value} = .316$		
교육과정 만족 여부	만족	13 (18.6)	3 (21.4)	11 (32.4)	7 (12.1)	8 (28.6)	15 (20.0)	1 (16.7)
	불만족	57 (81.4)	11 (78.6)	23 (67.6)	51 (87.9)	20 (71.4)	60 (80.0)	5 (83.3)
Chi-Square Test		$x^2 = 0.062, df = 1, p\text{-value} = .804$		$x^2 = 5.604, df = 1, p\text{-value} = .018^*$		$x^2 = 0.978, df = 2, p\text{-value} = .613$		
한의대 진학 추천 여부	추천	48 (66.7)	17 (89.5)	37 (82.2)	33 (61.1)	29 (85.3)	53 (70.7)	1 (14.3)
	비추천	24 (33.3)	2 (10.5)	8 (17.8)	21 (38.9)	5 (14.7)	22 (29.3)	6 (85.7)
Chi-Square Test		$x^2 = 3.832, df = 1, p\text{-value} = .050$		$x^2 = 5.282, df = 1, p\text{-value} = .022^*$		$x^2 = 14.461, df = 2, p\text{-value} = .001^{**}$		

* $p < 0.05$, ** $p < 0.01$

다. 교육과정의 불만족 사유로는 교수법의 개선의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여, 재학생들의 교수법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과목 부족, 과한 유급제도 등의 다른 응답도 15%가 넘는 응답을 얻어, 불만족 사유가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선행연구¹⁸⁾에서 의과대학생들은 수험생들에게 의대진학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높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 한의대생들의 동일한 문제에 대해 반대의 결과가 있었다.

3.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77.9%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선행연구¹⁹⁾에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59.1%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양한방 협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2.7%가 양한방 협진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38.4%는 협진 체계 구축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하여, 양한방 협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4. 의료일원화

본 조사에서는 의료일원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지 않고 다만 의료일원화 자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료일원화는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42.3%로 가장 많았으나,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일원화는 불필요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모두 14.7%~19.6%의 응답을 얻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양한방 협진’ 등의 다른 현안의 응답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5. 한의학, 중의학,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한의과대학 재학생 중 37.2%는 ‘한 의학과 TCM 또는 CAM은 별개다’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46.4%의 응답자는 ‘한의학은 TCM 또는 CAM의 일부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충분히 한의학의 세계화란 문제에 대해 26.4%는 가능하다고 생각했

지만, 65.6%의 응답자는 ‘노력에 따라 세계화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답해,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V. 결론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11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한의 학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중앙값에 조금 못 미쳐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의과대학 진학을 추천하겠는가에 대해서는 평균값 이상으로 학문 자체에 대한 관심은 교육의 만족도와 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한방 협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학과 TCM 및 CAM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TCM 및 CAM 그리고 한의학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과정 상, 양방과목이 많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의료일원화는 불필요하고, 한의학은 TCM 또는 CAM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한의학은 TCM 및 CAM과 별개라고 생각하며, 한의과대학 진학을 추천하는 학생일수록 한의학은 TCM 및 CAM과 별개며, 한의학의 세계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과대학원 및 대학에서 한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급변하는 시대의 사회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으므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에 그치지 않고 기타 의학계열, 더 나아가 다양한 타 단과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한 의과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 만족도를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의과대학만의 독자적인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 응답자가 ‘나는 한의대생이다.’라는 SNS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응답자

의 58.3%가 대구한의대학교에 재학생이었다는 점, 그리고 응답자의 학년 분포도 중 본과 3학년이 소수였다 는 점이 한계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응답자의 재학 학교와 학년 분포가 고른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유의미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2014:570
2. Brent D. Ruben. Defining and assessing “quality” in education. In B. D Ruben (Ed.), Quality in Higher Education, 1995:157-172
3. 이연숙, 서흥관, 김철수, 김일수. 한의학과 양한의 학 일원화에 대한 양의사의 인식도. 가정의학회지. 1999;19(8):662-669
4. 구제길, 노홍인, 홍선미, 강인숙, 이영호, 한동운. 양한방협진제도에 대한 직장인들의 태도. 2009:13(2):129-146
5. 권순원. 보건의료서비스의 자원조달과 전달 체계. 사회 보장 연구. 1992;8(1):115-154
6. 유왕근, 김경숙. 한양방 협진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인식도.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5;9(2):77-91
7. 사공영호, 조병훈.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규제연구. 2013;22(3):225-260
8. 이평수. 보건의료 측면에서 본 규제기요틴. 의료정책포럼. 2015;12(4):92-98
9. 채한. 한의학 세계화 연구: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0;24(6):1068-1076
10. 황중서. 보완대체의학의 세계화와 한의학의 발전방안.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2;20(2):141-153
11. 윤병한, 하안례, 이용환. 간 질환 환자들의 대체의학 이용실태. 고신보건과학연구소보. 2002;12:37-52
12. 정우열. 한의학과 대체의학. 과학사상. 2001;39:72-90
13. 류영수. 대체의학과 한의학의 비교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7;8(2):1-12
14. 김수관, 구영경, 정미애.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12(8):248-255
15. 양진희, 김녹현, 이순옥. 예비보육교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福祉行政論叢. 2013;23(1):47-71
16. 강승희.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간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010;22(2):151-164
17. 권상우, 신상우, 임병묵. 한의학교육에 대한 전공대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 대한한의학회지. 2012;33(1):1-11
18. 김창엽, 김선민, 서정돈 등. 의학교육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만족도 조사. 한국의학교육. 1996;8(2):169-188
19. 허남우, 정승아, 김선재, 목나래, 박해원, 신현규. 의대생들의 한의학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17(1):107-116